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광주김치축제 개막

25~28일 광주김치타운 일대

경연대회·월드셰프 대전...

北김치 시연 등 다양한 행사

광주의 김치를 알리는 '제25회 광주세계 김치축제'가 25일 광주김치타운에서 개막한다. 이번 김치축제는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28일까지 광주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를 '광주김치의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5일 열린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음식 명인들이 참가해 대통령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했다.

또 27일에는 월드마스터 셰프들이 자기 나라의 요리에 김치를 접목한 응용요리를 만들고 김치를 배우는 '월드마스터셰프 김치대전'이 열린다. 이어 28일에는 전체 재료의 30% 이상을 김치로 만드는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26일에는 스타 셰프가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김치와 김치 응용요리를 선보이는 '월드 마스터 셰프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시민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고 맛보며 구매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광주시는 축제 기간 내내 '김치 버무림 체험', '김치장터-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외교관 등 주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광주 김치문화 투어' 등을 한다.

김치를 주제로 한 '김치사랑 전국 촬영

대회', 배추 풍선으로 제작한 포토존 '배추 세상!', 김치 재료 그림 모음 '김치 우산길 전시', 축제장을 관람한 후 도장을 찍으면 상품을 지급하는 '김치 스탬프 랠리' 등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이 밖에도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배추 노래방-나도 가수'와 '7090쇼', '해외민속 공연', '코메디 서커스쇼', '소리치고 비비자-춤 경연대회', '김치클럽 광주', '가족 뮤지컬', '김치 버스 전시 및 북 콘서트', '김치명인 토크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또한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통일한 마당'을 주제로 탈북 새터민 출신 전통음식 명인 1호 장유빈씨 등 탈북 새터민들과 광주 김치명인들이 함께 하는 '남북 8도 전통김치 전시', '북한 주민들의 일상 김치 전시', '남북 명인의 명품 김치 전시', '남

과 북의 명인들과 함께하는 통일 김치 시연 및 체험' 등도 열린다.

김장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오는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김치타운에서 '2018 빛고를 김장대전'이 열린다. 매년 열리고 있는 김장대전은 절임 배추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는 체험부터 김장 원·부재료 판매, 포장용 김장김치 구매 등이 가능하다. 김장대전 기간 판매되는 김치는 2016년 106t, 2017년 140t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김치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및 상품개발, 홍보 등 광주 김치산업의 혁신을 통해 맛의 도시, 김치종주 도시로서 광주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사회서비스 품질을 논하다’ 정책포럼

광주복지재단 내달 2일 전남대에서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장현)은 오는 11월 2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한다.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대 공공복지인력양성사업단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논하다'를 주제로 김은정 교수(부경대학

교 행정학과)가 주제 발표한다.

또 함철호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좌장을 맡아 김오성 과장(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이중섭 단장(전북 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춘옥 센터장(늘봄사회서비스상담센터), 황정하 교수(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장현 대표이사장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교육부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광주시 북구는 25일 "교육부가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인생배움터, 무릎학교'가 평생학습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광주 지역 최초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구의 '인생배움터, 무릎학교'는 지난 2015년 시작한 특성화사업으로, 행복 학습센터를 거점으로 마을별 평생학습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펼쳐나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마을인문' '숨씨' '골목' '마을생태 캠퍼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학습만족도를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했다.

경력단절 여성들과 퇴직자 등 지역의 숨겨진 인적자원을 평생학습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교육 과정의 학습이 아닌 삶의 경험 학습을 제공해 주민 사랑방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내일 발산마을서 사회적경제 장터 개장

광주시 서구가 27일 오전 11시 양산3동 발산마을에서 사회적경제 장터를 개최한다.

25일 서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장터는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 발산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장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행사로 수제청, 공정무역 휴생강, 유기농 식품 판매 부스와 전

통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부스 및 사회적경제 홍보관으로 구성된다.

청년가게 카페 플룸 테라스에서는 즐기는 버스킹 공연, 청년식당은 식사, 도자기 체험 등을 진행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 밖에 성악, 주민노래자랑 등 공연과, 장터,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홍보관 등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내달 1일 ‘남구 공동체의 날’ 다채로운 행사

광주시 남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분쟁 해결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2018 남구 공동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2018 남구 공동체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놀이 한판! 남구 16개 보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남구 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활동가 및 주민,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30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개 및 공연을 시작되며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남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한 176개 사업과 마을브랜딩 기반 성과를 공유하고, 남구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를 비롯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 마을 기반의 도시활력을 위한 상생 과제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무등산·김치축제장 시내버스로 오세요

대회 기간 3개 노선 증차운행

“무등산·김치축제 시내버스로 편하게 다녀오세요”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개방과 광주세계 김치축제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한다.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열리는 오는 28일 까지 행사장인 김치타운까지 운행하는 진월78번이 기존 2대에서 2대 증차돼 하루 총 4대로 46회 운행된다.

진월78번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장과 가까운 서부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운행하는 매일06, 16번, 26번 등 10개 노선을 이용한 후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셔틀버스는 송정역이나 광천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평일 5대, 주말 8대가 운행된다.

또 올해 두 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열리는 27일에는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원효사행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 등 2개 노선을 평소보다 9대를 증차 운행해 총 177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대폭 증차했다”며 “버스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각 운수회사 직원들의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최첨단 IT대회로 치른다

KT와 후원 협약...대회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제공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 된 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25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최대 종합 통신사업자인 ㈜KT(케이티)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통신 부문 공식 후원사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위 5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과 오기섭 ㈜KT 전남고객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KT는 조직위로부터 국내 스포스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대회 로고와 마스코트, 공식 후원사 명칭 등을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 KT는 대회 기간 전자통신망, IT 운영시스템 등 첨단 ICT 기술이 반영된 대회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해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VR/AR(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드론 등의 기술을 접목한 ICT 홍보관을 대회 주경기장 등에 설치하여 각국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카타르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영택 총장은 협약식에서 “KT가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첨단 IT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38평, 302호

✓ 사무실 전용, 20층중 3층, 하천방향

✓ 전체 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2대 무료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 53평, 701호

✓ 사무실/주거겸용, 20층중 7층, 코너

✓ 전체올수리, 대형주차장, 주차3대 무료

✓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중

✓ 시세 - 1억 5000만원

✓ 급매 - 9000만원

(10월 31일까지 이전 조건)

문의. 010-6834-7400